

이 달의 책

퇴계의 생애와 학문



이상근 지음
세신 380쪽
값 7,000원
개인서림

『성균관』이나 『향교』에 머물러 있던 '유교'를 그 본래의 모습인 '유학'으로 바꾸어 낸, 한국 신유학 1세대 학자인 이상근(1905~1976) 선생의 저술로, 1973년에 문고판으로 나왔던 것을 요즘 독자를 위해 다듬고 보태어 펴낸 책이다. 퇴계와 관련된 수많은 책 가운데 아직도 이 책만큼 퇴계의 철학과 사상을 정밀하면서도 쉽게 밝혀 낸 책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불교 선수행의 핵심



나나오카 지음
세신 200쪽
값 3,000원
시공사

붓다의 가르침은, 정신 훈련과 선수행을 하려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적과 기질과 능력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가르침 중 하나인 '염처법(念處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엮은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이다. '선수행의 핵심' 또는 '완전한 진리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염처법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소상히 밝히고 있다.

서도소설의 선과 관음



법성당 지음
세신 200쪽
값 3,000원
경림각

우리 고전에 부영된 불교 사상, 특히 선(禪) 사상의 문학적 형상화는 주로 선시(禪詩)가 주축이었고 연구의 중심 또한 그 쪽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서도 김만중의 철학적 기반이 불교 사상이었다는 점에 주목, '구운몽'이라는 소설이 선의 세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과 '사씨남정기'는 그 소설적 배경이나 주제가 관음 신앙임을 밝혀 낸다. 서도의 소설이 '선과 관음'이라는 주제를 독창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논증하는 값진 연구서다.

말에게 들려 주는 작은 철학



롤랑트 시몬 세피 지음
이상환 옮김
세신 200쪽
값 6,000원
동문선

그 동안 우리 나라 제도 교육의 철학 교육은 유명한 사상 철학자 이름 외우기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철학적 사고하기가 빠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철학 교수가 말에게 주는 편지 형식으로 쓴 이 책은, '말'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기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재에 이르기까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독자 스스로가 존재와 세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종교의 위기



루이디 노리유키 지음
양희만 옮김
세신 200쪽
값 5,000원
두루문

『종교 위기』, 그것은 종교가 일으키는 위기에, 종교 자신의 위기에, 그리고 종교라는 거울에 비친 현대라는 시대의 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는 현대 종교의 위기에 대한 지은이의 인식은, 종교가 일으키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공허한 비판을 넘어 종교와 현대 사회의 실재를 적시하고 창조적인 전망과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동강에는 굽이마다 생명이 흐른다



신경림 외 지음
세신 250쪽
값 3,000원
다산재상

『보존』이나 『개발』이나 또는 『공생』이나 『경복』이나 하는 자연과 인간의 화해의 대립의 한가운데에서 서서 어느새가 우리 산하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름, 동강! 그 동강의 아름다움과 그곳에 등 기대가 발 담고 사는 사람들의 여가를 담은 책이다. 신경림, 원병오, 김용택 등 '동강을 사랑하는 사람' 7명이 함께 부른 생명의 노래.

禪 깨달음의 길



오고산 지음
세신 200쪽
값 3,000원
반야당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고산 스님이 대중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게 쓴 선 이야기. 정교한 언어와 현란한 수사로 이루어진 학자들의 선 해설서와는 달리 쉽고 편안하게 읽히면서도 선의 본질에 다가서게 한다. 수행자로서의 엄정함과 체험이 어우러진 결과일 것이다. 조사들의 일화와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는 선화(禪話)를 통해 선의 고갱이를 드러내 보인다.

유식학 개론



이만 지음
세신 200쪽
값 5,000원
민족사

세계는 마음의 포섭에 불과하다는 유식학의 학문 세계와 수행론 등을 다룬 개론서이다. 다시 말해, 불교의 심층심리학과 철학 유식에 대한 이해 즉, 마음의 구조와 그 작용을 잘 인식하고서 활동하면 공구의 목표인 성불(成佛)에 이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식학을 살피고 있다. 발다른 설명 없이 쓰이는 철학적 개념어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책의 체계와 서술 구조가 논리적이므로 입문서로서의 몫은 충분히 감당한다.

역주 선림승보전 상 (譯註 禪林僧寶傳 上)



혜동 각법(慧東 覺法) 지음
한상준(韓相俊) 역주
세신 250쪽
값 9,000원
경림각

계탈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지업(枝葉)들은 모두 버리고 정실(精實)만을 오롯이 모아 놓은 책으로서, 『경덕전통』, 『조당집』 등을 계승한 보다 정확하고 정성된 선종 사사(史書)이다. 혜동 각법 스님이 발과 귀로 찾아낸 희명의 조사가 남긴 말과 행동을 통해 '교외법전(敎外別傳)'·'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 불리는 전통(傳統)의 역사를 밝히고 있다.

『스타디움 찾아가기』

주요 불경의 요점 허공의 몸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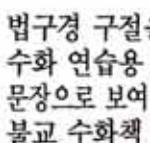


서지영 지음 / 세신 62쪽
값 2,500원 / 불교시대사

"거만히 있으면 무식은 변한다."는 말이 있다. '말 없음'의 미덕에 대한 세간의 과장된 믿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불교(佛敎)에서는 어떻게? 역시 '말 없음'은 으뜸가는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디 그뿐인가. "언어를 떠난 사람이 오히려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無人解語)", 고 했다. 증용록(證用錄)의 일절이다. 그러나 불교는 다경전(多經典)·다방편(多方便)의 종교이다. 오죽했으면 8만 대장경이라 했을까. 총린스립지 않을 수 없다. 첫발을 내딛는 사람이려면 더욱 그렇다. 마치 탁 트인 들판이나 큰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꼴이다. 하지만 같은 어디로도 알려 있다. 또한 그 모두가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언제 앞초에 부딪힐지, 비란으로 떨어질지 모를 일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잡이가 필요한 것이다. 수많은 경전이 생겨난 것도 그런 까닭에서이다. 그렇긴 하지만 경전은 어느 길잡이와는 다르다. 길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길잡이이기도 한 길잡이이다. 말 없음을 말하고, 길 아닌 길이다. 그렇지만 이 길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우선 믿음직한 나침반부터 구할 일이다. 감히 말하건대, 『허공의 몸을 찾아서』야말로 경전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나침반의 구실을 하기에 조금의 모자람도 없는 책이다. 사실 나침반이란 표현도 이 책에 대해서는 심한 결례다. '허공'과 같은 책이기 때문이다. 허공은 어떤 경우든지 스스로를 팔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미 허공이 아니니까, 그 대신 감싸안은 모든 것을 자기의 모습으로 팔지 않겠다. 신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따라서 허공의 '몸'은 세계 그 자체다. 깨어 한 마리, 풀 한 포기 그대로 허공의 몸이다. 삼라만상이 그 모습 그대로 텅 비어 있음의 실체이자 불성의 나침반인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것을 보여 준다. 광범한 읽기를 통해 그것을 가능케 한다. 이 책의 성격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말 그대로 '주요 불경의 요점'을 밝힌 책이니까. 하지만 이 책의 진면모는 그게 아니다. 경전을 '용감하게' 풀어 놓았거나 내용을 해체(解體)해 놓은 책들과는 색이 다르다. 경전의 핵심을 밝힌 대목은 그야말로 화평정성(和靜正情)이요, 잘 익은 과일과 속살 같은 문장들은 그대로 보석이다. 불가에서 말하는 '말 없음'의 미덕은 무식을 감추기 위한 세간의 착세와는 다른 차원이다. 무조건적 침묵을 침묵한 게 아니다. 49년 간 장광설을 하시고도 밤마다 일도 한 바 없었다는 능가경의 일절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침묵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부처의 경지를 넘볼 수 있는 사람은 방아쇠 말고는 없다. 8만 대장경과 능가경의 '불설일차(不說一字)'를 나란히 읽을 때에 올랐을 때 이루어지는 경행 같은 경지에서는, 8만 대장경의 한자 한자가 그대로 침묵이다. 말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 책 또한 책 아닌 책이다. 광범한 독서 행위에도 '말 없음의 말'을 읽게 하는 드물게 귀한 책이다. 손가락이면서 달이요, 길잡이면서 길인 책이다.

문재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부 yunjh@buddhapia.co.kr

법구경 구절을 수화 연습용 문장으로 보여 주는 불교 수화책



법성당 지음
세신 200쪽
값 3,000원
경림각

청각 장애인들의 몸짓 언어인 수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화책은 약 30여 종. 그러나 대부분 책들이 불교 용어를 잘못 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교 수화 교재까지도 조잡하고 단순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수화와 불교 수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출간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광림사 연화복지원(원장 혜성 스님)이 3년 여의 집업 끝에 5월 말 수화 교재 『자비의 수화교실』과 발책부록

『불교수화 용어집』을 도서출판 불광에서 펴낸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청각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이다. 각 면마다 경전 문구를 수록한 것은 물론 법구경 구절을 수화 연습용 문장으로 제시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 일반 수화 교재에는 없는 불교과를 따로 마련해 현재 쓰이고 있는 불교 단어 표기 개편 인용, 간단한 용어해설과 손짓

하는 방법을 수록했다. 『불교수화 용어집』을 불광부북으로 만든 것도 청각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 혜성 스님은 '청각 장애 인법회를 운영하면서 불교 수화를 모르고 살아온 이들에게 불교 단어를 이해시키기 힘들었던 것이 수화책 발간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발간의 계기를 밝혔다.

작가 독서



로산 지음 / 세신 200쪽
값 9,000원 / 조흥

출가 수행자들을 향한 세간 사람들이, 또는 맑은 바람이 불어 친구를 이 산마루를 돌아오듯이, 저는 특별 한 계기없이 자연스럽게 저질로 질에 찾아왔습니다. 출가 수행자에게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그 절실함이 수행진전을 채찍 짓는 힘이 되겠지만, 물 흐르듯 거문고 줄 고르듯 자연스런 법인이 흔들림 없는 수행의 원천이 되기도 함을 보여 주고 있다.

출가 수행자에게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그 절실함이 수행진전을 채찍 짓는 힘이 되겠지만, 물 흐르듯 거문고 줄 고르듯 자연스런 법인이 흔들림 없는 수행의 원천이 되기도 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자연스런 인연으로 출가하여 30여 년을 전국 각지의 선원에서 수행해 온 호산 스님의 지은 생의 기억들을 담고 있다. 어린 시절 불교를 만나게 된 인연과 입산 후 은사 전 경 스님을 만나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왔는지 하는 수행기, 난해한 불교 교리가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광범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라이타(自利利他)를 주는 진언의 공덕, 불자의 세간살이는 어떠한가 하는 지를 상세하게 알려 주고 있다.

이 책을 말한다



한국종교연구원 지음 / 세신 420쪽
값 14,000원 / 장년사 외남

『종교 다시 읽기』 소장학자들이 이야기로 풀어 쓴 종교학 에세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마다 나름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리는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럿일까요. 진리가 하나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교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인간 문화의 다양성을 생각한다면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주변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적응하면서 전개시켜 온 문화의 일부니까요. 하지만 이런 현실이 진리가 하나냐 여럿이나 하는 물음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음은 다양한 종교적 진리 주장들이 공존하는 다종교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요. 종교와 진리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 즉 배타적 태도, 포괄적 태도 병행적·다원적 태도 때문입니다. 배타적인 절대 신념이 바깥으로 유출될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일부 종교인들이 불상의 목을 자르고, 마리아상에 불을 지르는 짓은 분명한 폭력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종교가 유일한 진리

임이 분명한데 어찌 가만히 있었느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주먹구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종교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의 물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진리가 하나냐 여럿이나 하는 물음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은 ‘아니오’입니다. 종교라는 현상에 반드시 진리 문제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 문제는 종교사 속에서 우주, 인간, 신적 존재 등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가 나타남에 따라 비로소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가 진리에 대한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종교를 열등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미 ‘종교란 진리에 대한 추구’라는 식의 편협한 종교 정의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종교 다시 읽기”는 “종교는 환상인가” “종교 체험 없이 종교를 연구할 수 있나” “교회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죽을 너머의 세계에 무엇이 있나” 등 30~40대 소장 종교학자 19인이 한국의 종교적 상황

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소장학자들이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 써낸 이 책은 우리 주변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물음 35가지를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른바 사이비 종교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용어인지를 지적하기도 하고, 유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다루면서 종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보수 종교의 일방적인 논리에 가대어 있는가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처럼 이 책의 각 응답 안에는 종교 일반과 특정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뿐만 아니라, 종교를 둘러싸고 전개된 중요한 쟁점, 그리고 종교를 보는 주요한 시각이 모두 녹아 있다. 대개의 개론서들이 정형화된 틀 내에서 여러 가지 준비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비해, 이 책은 제대로 문에 여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나름의 의견을 건 채 종교 현상을 선입견으로 바라보기 쉬운 일반인들 인식에 대해 “왜”라고 계속 반문함으로써 독자들이 편견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돕는다.

사이비 종교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용어인지를 지적하기도 하고 유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다루면서 종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보수 종교의 일방적인 논리에 가대어 있는가를 드러내기도 한다.

여시아문 추천 범공양 도서 - 부처님 오신 날을 맞으며

- 1 부처님의 생애 - 박경훈 지음 / A5신 380쪽 / 불광 / 값 6,000원
- 2 고타마 붓다의 생애 - E.H. 브루스터 편저, 박태섭 옮김 / A5신 216쪽 / 시공사 / 값 6,000원
- 3 붓다 - 플커 초츠 지음, 김경연 옮김 / A5신 양장 210쪽 / 한길사 / 값 8,000원
- 4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 - 한정섭 편저 / A5신 280쪽 / 불교대학교재편찬위원회 / 값 6,000원
- 5 부처님 일대기 - 세운 역음 / A5신 280쪽 / 초흥 / 값 6,500원
- 6 붓다와 그 가르침 - B.R. 암베드카르 지음, 박희준·김기은 옮김 / A5신 308쪽 / 민족사 / 값 7,000원
- 7 부처님의 생애 - 안양규 옮김 / A5신 264쪽 / 불교시대사 / 값 5,000원
- 8 부처님 생애 - 정각 역음 / A5 142쪽 / 문주사 / 값 4,000원
- 9 불타 석기모니 - 와다나에 쇼오 지음, 법정 옮김 / A5 368쪽 / 생터 / 값 4,000원
- 10 필리핀인이 들려 주는 고타마 붓다 - 최봉수 옮김 / A5신 342쪽 / 불광 / 값 6,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 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출판사: 현대불교신문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경희로 110-33
전화: (02)737-0696, 732-1521
팩스: (02)737-0696

— 여시아문 편집부 —